

#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장진주<sup>1</sup> · 신성희<sup>2</sup>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sup>1</sup>,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sup>2</sup>

##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Chang, Jin Joo<sup>1</sup> · Shin, Sung H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eoul  
<sup>2</sup>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Methods:** Study design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analysis of causal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94 students in a C city high schoo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There were direct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 $\beta = -.39, p < .001$ ),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beta = -.16, p = .004$ )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 $\beta = .34, p < .001$ ) on problem behavior in these students. A mediator effect was found for self-differentiation, as it had a direct impact on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 $\beta = .15, p = .014$ ), which then had a direct impact on problem behavior. However, family function had no direct impact on both th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the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on problem behavior, no mediator effect was observ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problem behavior was 48.0%. **Conclusion:**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o intervene for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utilize programs that not only intervene for self-differentiation but also decrease high school students' use of non-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Key Words:** Problem behavior,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Emoti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경쟁

의 가열, 이혼율 증가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의 축소와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내 학대 등 대내외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있다[1].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경쟁 및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한 갈등

**주요어:** 문제행동, 자아분화, 가족, 기능, 정서

**Corresponding author: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Received: May 29, 2017 | Revised: Jul 26, 2017 | Accepted: Aug 21,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나 고민, 그리고 가족문제, 친구문제, 학교문제, 신체변화의 문제, 진로 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폭행, 자살 등의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2,3].

문제행동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적·행동적 부적응의 결과를 의미하며[4],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두 차원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5].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정체성 형성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건전한 정서발달과 창의적 사고를 방해받고 자신들의 위치와 부조화된 사회 현실 앞에서 폭력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인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6].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과 같은 신체증상과 더불어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낸다[6].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7.4%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인지율은 40.5%였다[7].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우울감 경험율은 전체 청소년의 25.5%였으며, 고등학생은 27.7%로 나타났다[7].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고등학생 시기에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우울은 불안과 더불어 많은 청소년 연구에서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5,8].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은 학업, 자아개념, 진로, 교우관계 등의 영역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여 문제행동을 발생시키게 되고[8], 이러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가족과 학교의 통제력을 벗어난 성인기로 이어지게 되면 보다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9].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조기에 발견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 학교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된다[10]. 이러한 문제행동의 관련 원인은 특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시도 되고 있다[10]. 최근 이러한 통합적 접근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0]. 그 중 청소년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업 중 하나는 부모와 분리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확립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자아분화이다[8]. Kim 등의 여러 연구[8,10,11]에 의하면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자아분화란 미분화된 가족 자아군(Family ego mass)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8].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에 바탕을 둔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므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12],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하며 삶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12]. 그러므로 자아분화의 발달로 개인이 분명한 자아를 갖게 되면, 타인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13]. 즉, Bowen의 자아분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바로 문제행동과 직결된다고 하였다[12]. Joo [10], Yun과 Shin [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분화의 수준에 따라 본능적 충동에 따른 행동, 사회 부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구조의 변화 요인 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상태에서 관찰되는 가족 구성원의 자아분화에 따라 문제행동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가족은 체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받으므로[9] 개인차원의 자아분화뿐 아니라 가족차원의 가족기능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보고된다[15]. 가족은 하나의 전체적이고 통합된 체계로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특성을 갖는다[11].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융합을 이루면, 가족이 불안이나 긴장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지적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을 잃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8,11]. 따라서 가족기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8,11]. 반면, 가족기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은 개인의 자아분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며 충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신체화, 대인관계 예민성, 강박증, 우울, 적대감, 편집, 불안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발생시킨다[8,11]. 이와 같이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상호관계가 있으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1].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4,16,17]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을 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전략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분화와 같은 개인차원의 변인과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차원의 변인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나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시기이고 내면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고등학생 개개인이 갖는 특성과 심리적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an과 Kim [9]에 의하면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자극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을 통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즉 정서조절이 잘 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다루는데 능숙하게 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최근 정서조절의 측면 중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정서조절의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5].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서 발생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다[18]. Kim [18]의 연구에서는 이를 수용,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의 다섯 가지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파괴화 네 가지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다. Gamefski는 특정 인지 스타일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병리에 더 취약하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8].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유발되는 갈등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다면 비효율적 갈등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을 주장하였다[19]. 그러므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20] 청소년들에게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임을 시사한다.

또한 Kim [2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개인 차원의 자아분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며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이성보다는 감정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며, 정서조절이 부적응적인 경우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20].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가족기능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on과 Moon [16]의 연구에서 가족 상호작용 기능과 정서조절이 내재화와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족차원의 가족기능과 정서조절전략이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인 개인차원의 자아분화와 가족차원의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차원의 변수들과 문제행동,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련성을 본 연구[18,19]가 대부분이고, 이 변수들과 가족차원의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22]라 할지라도 이는 청소년의 개인차원 및 가족차원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청소년의 개인차원과 가족차원을 세분화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4,17]일지라도 문제행동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Kim [18]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며,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1]. 또한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10,22],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일개 인문계 고등학교 1, 2, 3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경로의 자유 모수치수(전체 모수치수 - 고정 모수치수) × 20의 수식을 근거로[23] 자유 모수치수가 8개인 본 연구의 경우 총 표본 수는 160 (8×20)명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산출근거에 따른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아분화 36문항, 가족기능 20문항,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6문항(적응적 20문항, 부적응적 16문항), 문제행동 12문항,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나이, 형제순위, 동거가족, 부모학력, 부모직업, 학교성적, 가정월수입) 9문항의 총 11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도구는 원저자 또는 변안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Je [2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인지·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통합(6문항), 가족투사과정(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언제나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4점이다.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24]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Portner와 Lavee (1985)가 개발하고 Kim 등[25]이 변안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평가 도구인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결속력(10문항)과 가족적응력(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하고 Kim [18]이 변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적응적인 전략과 부적응적인 전략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18].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에 대해 체념하는 사고인 '수용',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하는 '계획 다시 생각하기', 실제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전략인 '긍정적 초점변경', 개인적인 성장의 의미를 사건에 긍정적으로 부여하는 사고인 '긍정적 재평가', 사건의 심각성을 덜거나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성을 강조하는 사고인 '조망확대'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기 비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타인 비

난', 부정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느낌과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반추',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사고인 '파국화'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4문항씩 총 36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8]의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alpha$ 는 .66~.85였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Cronbach's  $\alpha$ 는 .53~.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Cronbach's  $\alpha$ 는 .75였다.

#### 4)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내재화된 문제행동, 외현화된 문제행동 두 차원으로 분류 된다[4,5]. 본 연구에서도 Oh와 Lee의 연구[4] 및 Jung과 Yoo의 연구[5]를 근거로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불안·우울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공격성으로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이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를 위해 사용한 Kim 등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도구 중 불안·우울척도 6문항과 Choi와 Kim [12]이 개발한 정서행동문제 자기 보고형 척도 중 공격성 6문항의 총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정책연구원[1]이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를 위해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공격성을 포함하여 한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잘 반영된다고 판단하여 채택한 도구로서, 만 16~18세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타당성이 확보된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평균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1,12]의 신뢰도는 불안·우울의 Cronbach's  $\alpha$ 는 .83~.91, 공격성의 Cronbach's  $\alpha$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의 Cronbach's  $\alpha$ 는 .86, 공격성의 Cronbach's  $\alpha$ 는 .79, 전체 문제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였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였으며 편의표집 방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C도에 소재한 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허락된 날짜에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자료에는 설문지, 연구목적 및 설문작성 방법과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포함하여 회신봉투와 함께 제공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부모의 서면동의서와 함께 회신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215부 중 21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7.7%),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발적인 연구참여도가 높아 남녀 비율이 각각 29.9%, 70.1%로 여학생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서울시 소재 K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HSIRB-16-038)을 받았다. 연구대상자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에 해당되므로 서면으로 연구대상자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과정을 설명하였고, 참여 중단 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한 후 학생과 보호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수거된 설문지는 통계 처리 시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코드로 식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연구자료는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캐비닛에 넣어 잠금상태로 보관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지만,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호소할 경우 정신과 및 상담경력 3~10년차인 연구자들이 즉시 상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까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자료수집 과정 중 실제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로 확인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는 평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Problem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rade	1st	118 (60.8)	2.44±0.69	1.57	.211
	2nd	71 (36.6)	2.28±0.66		
	3rd	5 (2.6)	2.13±0.53		
Gender	Male	58 (29.9)	2.53±0.71	2.21	.028
	Female	136 (70.1)	2.30±0.65		
Living with	Both parents	182 (93.8)	2.36±0.68	-1.20	.610
	Single parent	12 (6.2)	2.60±0.68		
Sibling order	First	109 (56.2)	2.42±0.72	0.68	.508
	Middle	69 (35.6)	2.30±0.61		
	Last	16 (8.2)	2.35±0.66		
Level of fa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5 (2.6)	2.38±0.86	0.97	.381
	High school	58 (29.9)	2.47±0.70		
	≥ College	131 (67.5)	2.33±0.66		
Level of mother's education	≤ Middle school	3 (1.6)	1.75±0.51	1.31	.272
	High school	67 (34.5)	2.36±0.68		
	≥ College	124 (63.9)	2.39±0.68		
Father's occupation	Have not	2 (1.0)	2.96±0.65	-1.23	.744
	Have	192 (99.0)	2.37±0.68		
Mother's occupation	Have not	62 (32.0)	2.34±0.72	0.49	.858
	Have	132 (68.0)	2.39±0.66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5 (2.6)	2.77±0.76	1.96	.103
	200~< 300	28 (14.4)	2.62±0.67		
	300~< 400	39 (20.1)	2.41±0.68		
	400~< 500	45 (23.2)	3.29±0.50		
	≥ 500	77 (39.7)	2.27±0.69		
Academic achievement	High	56 (28.8)	2.28±0.71	2.91	.057
	Middle	76 (39.2)	2.30±0.61		
	Low	62 (32.0)	2.54±0.70		

**Table 2.**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ing,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N=194)

Variables	M±SD	Min	Max
Self-differentiation	3.02±0.34	1.89	3.75
Family functioning	2.96±0.49	1.45	3.95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3.38±0.55	1.40	4.85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98±0.45	1.50	4.69
Problem behavior	2.37±0.68	1.00	5.00

균과 표준편차로 확인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학년은 1학년 60.8%, 2학년 36.6%, 3학년 2.6%였고, 성별은 남학생 29.9%, 여학생 70.1%로 여학생이 많았다.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부모

와 함께'가 93.8%, 출생 순위는 '첫째'가 56.2%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부 67.5%, 모 63.9%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 유무는 '유'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99.0%, 68.0%였다. 가정의 총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9.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는 남자(2.53 ± 0.71)가 여자(2.30 ± 0.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문제행동 정도가 높았다( $t=2.21, p=.028$ ). 그 외 학년,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정의 월수입, 학교 성적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분화는 문항평점 4점 만점에 3.02 ± 0.3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2.96 ± 0.49점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3.38 ± 0.55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2.98 ± 0.45점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은 문항평점 5점 만점에 2.37 ± 0.6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자아분화( $r=-.59, p<.001$ ), 가족기능( $r=-.45, p<.001$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26, p<.0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49, p<.001$ )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자아분화는 가족기능( $r=.69, p<.001$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22, p=.002$ )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34,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24, p=.001$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20, p=.006$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ing,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N=194)

Variables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Problem behavior	1				
2. Self-differentiation	-.59 (<.001)	1			
3. Family functioning	-.45 (<.001)	.69 (<.001)	1		
4.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26 (<.001)	.22 (.002)	.24 (.001)	1	
5.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49 (<.001)	-.34 (<.001)	-.20 (.006)	-.00 (.956)	1

**Table 4.** Effect Coefficient for Hypothetical Model (N=194)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β)	Indirect effect (β)	Total effect (β)	SMC
Problem behavior				.48
Self-differentiation →	-.39***	-.15*	-.54***	
Family functioning →	-.07	-.00	-.08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16**	-	-.16**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34***	-	.34***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06
Self-differentiation →	.10	-	.10	
Family functioning →	.17	-	.17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18
Self-differentiation →	-.39***	-	-.39***	
Family functioning →	.07	-	.07	

\* $p < .05$ , \*\* $p < .01$ , \*\*\* $p < .001$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먼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검정을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ormal Fit Index (NFI),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5$  ( $p = .331$ ), CFI=1.00, NFI=1.00, TLI=1.00, RMSEA=.0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 모수치와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에서 유의수준을 산출하였으며,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경로를 제시하면 Table 4와 Figure 1과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로모형에서 경로 모수치로부터 측정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가족기능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 = .12, p < .001$ ).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분화( $\beta = -.39, p < .001$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beta = -.16, p = .004$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beta = .34, p < .001$ )이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없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자아분화( $\beta = -.39, p < .001$ )였다. 자아분화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효과( $\beta = -.39, p < .001$ )가 있었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beta = -.15,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중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beta = -.54, p < .001$ )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기능은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효과( $\beta = -.07, p = .31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총 효과는 자아분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순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이 변수들은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48.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 변수로 하는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NFI, CFI, TLI, RMSEA의 기준을 만족하였고,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효과 분석을 통해 자아분화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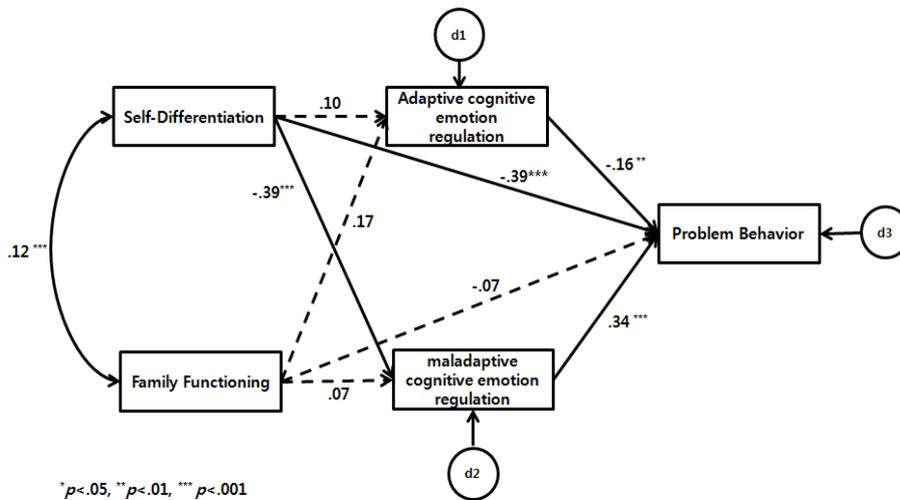


Figure 1. Testing for hypothetical model.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종속변수인 문제행동은 성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은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분석한 Jung과 Yoo [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Jung과 Yoo [5]의 연구에서는 내재화된 문제행동인 불안, 우울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공격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우울, 불안, 공격성을 통합하여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외현화된 문제행동과 내재화된 문제행동으로 나눠 측정된 Jung과 Yoo [5]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Oh [4]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다른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의 자기 보고형 K-YSR (Korea Youth Self-Report) 도구로 측정된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불안·우울로 측정된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공격성으로 측정된 것은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내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을 통합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발적인 연구참여도가 높아 연구대상자의 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므로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국외의 다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심리 내적인 위험요인, 특히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들이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기인하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26]. 이렇듯 내재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경우 각각 독특한 문제행동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26] 두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와 특히,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은 성별을 제외한 학년,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정의 월수입, 학교 성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Jung과 Yoo [5]의 연구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위험 및 보호요인의 관계를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검증한 Duncan과 Strycker [2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위,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었던 것과도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Thornberry는 청

소년 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18~20세)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28].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고등학생은 청소년 후기(18~20세)에 속하며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의 영향력 정도는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되고 있다[28]. 즉, 가족요인인 동거가족, 형제 순위, 부모 학력, 부모 직업, 가정의 월수입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Lee와 Cho [28]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C도의 일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반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학교 유형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의 평균은 2.3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내재화된 불안·우울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공격성으로 정의하고 만 16~18세의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Jung과 Yoo [5]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 및 가족을 포함한 지역적 환경특성이 다양할 뿐 아니라[27], 특히 본 연구가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학교 유형 및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문제행동 정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Lee [11]는 2개의 중학교(48.7%)와 2개의 고등학교(51.3%) 학생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등의 정신건강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정신건강 정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접근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다[11].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을 개인 및 가족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문제행동의 정도와 관련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가장 큰 음의 효과가 있었다. 즉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없었으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 상관관계에서도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한 Joo의 연구 [10]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는 최근 청소년 비행의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주제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족관계적 요인과 부부갈등, 한부모 가정 등의 가족 구조적 요인보다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서 자아분화를 주된 변인으로 하는 연구들 [10,11]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Joo [10]는 자아분화의 하위 요인인 ‘감정적 반응’이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원인 중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자기 통제력의 부재로 문제행동의 공격 성향을 약 2.5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충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다 크게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부정적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11]. 이러한 감정과 인지의 균형을 이루는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전반적인 발달과정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계도를 통한 교육, 탈삼각화, 의미요법 등 심리, 정서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개인 차원의 심리 상담과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 [10,29]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음의 효과는 있으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효과와 이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고 한 Cho [19]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순상관관계에서도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추후 고등학생의 자아분화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지 반복 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고등학생의 자아분화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음의 효과가 있으며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직접효과와 이를 매개로 한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며,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자아분화 수준의 고등학생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상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할 때 자기 비난, 타인 비난, 반추,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고등학생에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감소를 위한 중재로 연결되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중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증가가족기능은 상관분석결과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경로모형에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Lee [1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Yun과 Shin [14]은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친구지지, 교사지지, 부모지지보다는 개인차원의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역기능가족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나, 자아분화와 같은 청소년의 개인내적 요인을 강화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가족기능은 단순상관관계와는 달리 경로모형에서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며,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없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Moon과 Moon [16]의 연구에서 가족 상호작용 기능과 정서조절의 정도가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그러나 Moon과 Moon [16]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구체적으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또한 아동이었으므로 본 연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나, 적응적,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자체가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므로 고등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상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의 자기 비난 및 타인 비난, 부정적인 사건과 관계되는 느낌과 사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갈등방식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개최하여 참여시키거나, 정서조절전략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앱 개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함으로써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도의 일 인문계 고등학생만을 편의표출 하였고, 보호자와 학생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여학생의 자발적인 연구참여도가 현저히 높아 남녀 성비가 균등하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인 및 가족차원의 독립변인들 외에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여러 영향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가족차원의 가족기능보다도 개인차원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같은 매개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적 개입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및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구체적인 변인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는 개인차원의 자아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분화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고등학생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감소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향후 지역사회나 학교현장에서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의 감소나 예방적 차원의 개입 시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대상자의 수와 학교의 유형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개인 및 가족차원의 독립변인들 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아분화 확립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를 통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The First-Thir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User Guide [Internet]. 2015 [cited 2015 Nov 13]. Available from: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
2. Chung IJ, Park JY, Kim EY. Factors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school youth and out-of-school youth.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0;34:222-251.
3. Gang MH, Kwon JS, Oh KO. Influencing factors of resilie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2;20(3):187-198.
4. Oh YK, Lee HS.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0;22(4):51-64.
5. Jung SH, Yoo JA. The effects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on problem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6;56:1-32.
6. Moon KS.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6;27(5):143-157
7.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urvey of Youth Health Behavior [Internet]. 2016 [cited 2016 Dec 27]. Available from: <http://cdc.go.kr/CDC/main.jsp>
  8. Kim CY, Jo HS.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stress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8;14(1):61-70.
  9. Han JC, Kim IK. The bullying and psychosocial dysfunc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0;6(2): 103-114.
  10. Joo SJ. The effects of juvenile's self-differentiation on its delinquent disposition.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2012;8(3):215-240.
  11. Lee HS.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on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0;16(4):297-303. <https://doi.org/10.4094/jkachn.2010.16.4.297>
  12. Choi YS, Kim HY. Effect of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on the stress copi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05;21:1-17.
  13. Chang KM. Associations between youth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2): 845-854.
  14. Yun EK, Shin SH.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3):321-330. <https://doi.org/10.4040/jkan.2013.43.3.321>.
  15. Jung MS. The mediating effects of adaptive cognitive-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ositive a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quired disabilities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16;23(2):349-366.
  16. Moon DG, Moon SB.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1;32(5):49-65.
  17. Nam YO, Kim JN. A study on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0;12(2):123-141.
  18. Kim SH.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ful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008;26: 5-29.
  19. Cho SH. Self-differentiation and cognitive emotional control in adolescents and their influence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2. 65 p.
  20. Kim SA, Song HN. The effects of children's daily hassle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2012;15:121-135.
  21. Kim MJ.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0. 57 p.
  22. Kim HW, Lim JH, Lee JY. Family differentiation and worry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6;13(2):267-293.
  23. Mun SB.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ng model. Seoul: Hakjisa; 2009. 723 p.
  24. Je SB.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 behavior: based on Bowen's family system theory [dissertation]. [Seoul]: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1989. 115 p.
  25. Kim YH, Chung KH, Oh HS, Shin YJ, Yang YJ, Chung EH, et al. A study of mental health state and family function of parents with a mentally disabled person. *Journal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32-340.
  26.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L, Fabes RA, Losoya SH, Valiente C, et al.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2005;41(1):193-211. <https://doi.org/10.1037/0012-1649.41.1.193>
  27. Kim DI, Choi SM, Hong S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risk factors and problem behaviors of at-risk youth: valid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7;8(3):1121-1136.
  28. Lee JM, Cho YO. A study on factor of cyberbullying behavior depending on adolescent phase: a test of Thornberry's interaction theory. *Institute of Police Science*. 2016;11(4):319-348.
  29. Kim JA. Application of logotherapy for enhance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8;19(3):846-851.